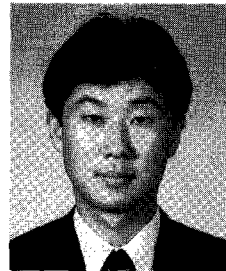


계열화 사업의 정착방안



김 홍 국
(주)하림 대표이사

자 유무역주의를 기초로 한 WTO 체제 출범 2년차인 올해 역시 전 산업계가 세계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육계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업분야도 예외없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96년은 참으로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 같다.

UR 타결과 WTO 체제 출

범, EC 통합과 NAFTA 탄생 등 최근 수년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이 국가단위를 넘어선 다국화된 무국적 주의로 흘러 오로지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 및 해당산업의 존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육계산업 역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결국 설자리를 잃고 만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

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한마디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계열화 사업의 조속한 정착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농가, 업체, 정부 등 3자가 합심하여 산적한 현안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사실 육계산업에 통합경영 방식의 도입은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아 왔던 국내 육계산업

을 유망산업으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타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농업분야에 통합경영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의 농업은 첨예한 시장 경제의 울타리속에 들어 있어 여타의 산업과 같이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이에 실패하면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부터 철저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통해 고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농장에서 생닭 상태로 판매가 이뤄지는 우리의 전근대적인 경영형태로서는 도저히 그들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예로 좁은 국토, 대부분의 사료곡물 대외의존 등 많은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네덜란드 농업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에 불과하고 인구는 1천4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농업인구는 1.8%인 25만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93년 농산물

수출이 309억불로 총 수출액 1,250억불중 2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출액 중 축산물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철저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통해 가공과 포장, 전문교역의 발달 등을 이룩하여 농산물 상품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네덜란드가 농산물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인근에 독일과 같은 거대시장이 있었고 정부 역시 일찌기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의 육계계열업체인 미국의 타이슨사의 경우 생산규모가 주당 2천5백만수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약 5배에 달하고 있는 등 외국의 농기업들은 통합경영과 대규모화를 통해 고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업도 소농가 위주의 소극적인 방어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계열체제의 조속 정착, 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등 공격적인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세계최대 농축산물 수입국인

일본을 지적에 두고 있는 유리점을 최대한 살려 대일수출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하게되면 많은 양의 농축산물의 일본수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일본이 지난해 수입한 닭고기는 약 42만5천톤으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2배 가까이 달하고 있다. 주요 대일 닭고기 수출에는 중국, 미국, 태국, 브라질 등으로 이들 4개국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 수입되는 닭고기는 전량 냉동육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고 국내산은 전량 신선육 상태로 비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현재 74% 정도의 시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지리적 유리성에 의해 신선육 상태로 수출이 가능,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이 어느나라 보다 높다.

관계전문가들은 2000년도에 가면 일본의 닭고기 자급율이 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어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량보다도 많은양의 닭고기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일본에 닭고기를 수출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생산원과 우수한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해 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시장은 2.5kg 이상의 큰 닭이 유통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및 위생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가 이와같은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열화 체계 정착을 통한 1차적인 원가 절감과 함께 사육환경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2차적인 원가절감을 기해야 한다.

현재 (주)하림의 경우 통합 경영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으로 일반 농가 생산비 kg당 983원보다 23% 낮은 kg당 750원의 생산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육환경개선에 의한 우수한 병아리 생산,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추가로 23%의 원가절감을 기해 오는 '97년 후반기에 가면 kg당 생산비가 580원 선으로 떨어져 미국 생산비 kg당 540원에 근접하는 생산성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육환경 개선이란 우수한 품질의 닭을 저렴한 원가로 생산하기 위해 닭 사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기존의 낙후된 계사건물 및 시설하에서는 일본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수출전용의 완벽한 환경조절 계사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UR 타결이후 정부에서 낙후되어 있는 국내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발법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고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제면에서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농어민 개인, 위탁 영농회사, 농업회사 법인 등에 국한되어 있고 현재 총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지정 계열화업

체, 규모화된 농사법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상당량의 축산기자재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입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본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영세율 확대전용, 관세인하 등이 요구되고 축산 신축시 부과되는 세금 역시 국내경영 토지, 건물부분을 합한 감정가의 3.3%~3.5%에 달해 미국의 0.7%~1.0%보다 3배이상 높다. 금리면에서도 정책자금 이용시 계열업체 등 농업법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점과 설비투자 경우 특성에 맞게 상환기간을 장기화 해주어야 한다. 축협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금집행기관 역시다양한

금융거래 현실에 맞게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의 양계는 전업화, 규모화에 따른 자동화 사육시설 등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 전기 사용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전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재의 500kw에서 2,000kw까지 상향조정하고 전기료도 더 낮추어 주고 수전설비는 미국과 같이 무료로 시설해주고 전기료만 징수해야 한다. 축사표준설계도 역시 현재 육계사의 경우 최대 103.2m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범위를 외국처럼 153m까지 확대하여 동당 사육규모를 3

만수까지 키워야 하며 건축자재 및 트러스 구조도 현실에 맞게 다양화 해주어야 한다.

병아리 사육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연료로 인정받고 있는 가스 경우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농업용 가스에 한해서는 반값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농업용 가스탱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완화해 농가에서 손쉽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에 있어 최대관건인 우수품질의 병아리 생산을 위해서는 종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종계군이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계군도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종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종계에 대해서만이라도 살처분 보상금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펴 성공을 거두었듯이 육계산업 역시 수출위주의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착오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자급도를 200%까지 끌어올려 100%이상의 물량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유망수출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양 14**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한다.
-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전 일정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먹여야 한다.